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역교회 참여 방안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손병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3항 제1호<sup>1)</sup>와 교육부 훈령 제106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sup>2)</sup>을 근거로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교육부사업이다. 2017년 현재 서울지역에 유치원 150원, 초등학교 509교, 중학교 359교, 고등학교 83교가 지정운영중이다(표 1 참고).

<표 1>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별 지정운영 현황

| 구분       | 동부   | 서부   | 남부   | 북부   | 중부   | 강동<br>송파 | 강서<br>양천 | 강남<br>서초 | 동작<br>관악 | 성동<br>광진 | 성북<br>강북 | 합계    |
|----------|------|------|------|------|------|----------|----------|----------|----------|----------|----------|-------|
| 전체학교수    | 94   | 151  | 126  | 139  | 102  | 143      | 144      | 128      | 99       | 82       | 95       | 1,303 |
| 거점<br>학교 | 초    | 19   | 21   | 23   | 19   | 5        | 7        | 18       | 4        | 14       | 9        | 156   |
|          | 중    | 14   | 19   | 19   | 18   | 4        | 7        | 16       | 2        | 10       | 11       | 137   |
| 일반<br>학교 | 초    | 21   | 39   | 35   | 39   | 26       | 42       | 38       | 37       | 28       | 20       | 353   |
|          | 중    | 15   | 27   | 14   | 20   | 20       | 33       | 22       | 27       | 21       | 10       | 222   |
|          | 고    | 10   | 14   | 6    | 15   | 7        | 5        | 9        | 2        | 2        | 4        | 83    |
| 계        | 46   | 80   | 55   | 74   | 53   | 80       | 69       | 66       | 51       | 42       | 42       | 658   |
| 합<br>계   | 79   | 120  | 97   | 111  | 62   | 94       | 103      | 72       | 75       | 62       | 76       | 951   |
| 비율(%)    | 84.0 | 79.5 | 77.0 | 79.9 | 60.8 | 65.7     | 71.5     | 56.3     | 75.8     | 75.6     | 80.0     | 72.9  |

\* 거점학교(전문 인력 있음), 일반학교(전문 인력 없음)(서울특별시교육청, 2017:pp.10)

서울특별시의 경우 학교와 지역기관을 연계하여 자치구 내 자원 발굴 및 학교지원, 교육소외 학생 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교육복지 기관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위하여 자치구내에 지역사회 교육복지네트워크도 21개 구축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표 2 참고).

<표 2> 지역교육복지센터 구축 및 운영

| 교육<br>지원청 | 동부        | 서부        | 남부              | 북부       | 중부       | 강동<br>송파 | 강서<br>양천 | 동작<br>관악 | 성동<br>광진 | 성북<br>강북 | 합계  |
|-----------|-----------|-----------|-----------------|----------|----------|----------|----------|----------|----------|----------|-----|
| 자치구       | 동대문<br>중랑 | 은평<br>서대문 | 금천<br>영등포<br>구로 | 도봉<br>노원 | 중구<br>용산 | 강동<br>송파 | 강서<br>양천 | 동작<br>관악 | 성동<br>광진 | 성북<br>강북 | 21개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pp.10)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거점학교의 프로그램 참여도가 초등학교 90.1%, 중학생 88.9%, 일반학교의 교육복지 프로그램 참여도가 초등학생 78.3%, 중학생 77.9%, 고등학생 57.6% 순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이라는 것과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생활태도가 학교폭력 수준(2015년도 초등 0.6%, 중등 1.7%, 고등 0.5%에서 2016년도 초등 0.2%, 중등 1.6%, 고등 0.6%)과 무단결석 정도(2015년도 초등 0.8%, 중등 4.4%, 고등 7.8%에서 2016년도 초등 0.6%, 중등 3.6%, 고등 7.7%)에서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2016학년도 운영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7:pp.12-13). 유치원의 경우 집중지원 유아수가 1,693명(지역청 평균 154

- 1)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교육·복지·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실시.
-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다문화탈북가족자녀 등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

명), 운영프로그램 수가 666개(유아 6,671명, 학부모 3,183명), 거점유치원에서 521명을 집중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총 629회의 사례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정도로 성과를 제시하였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7:p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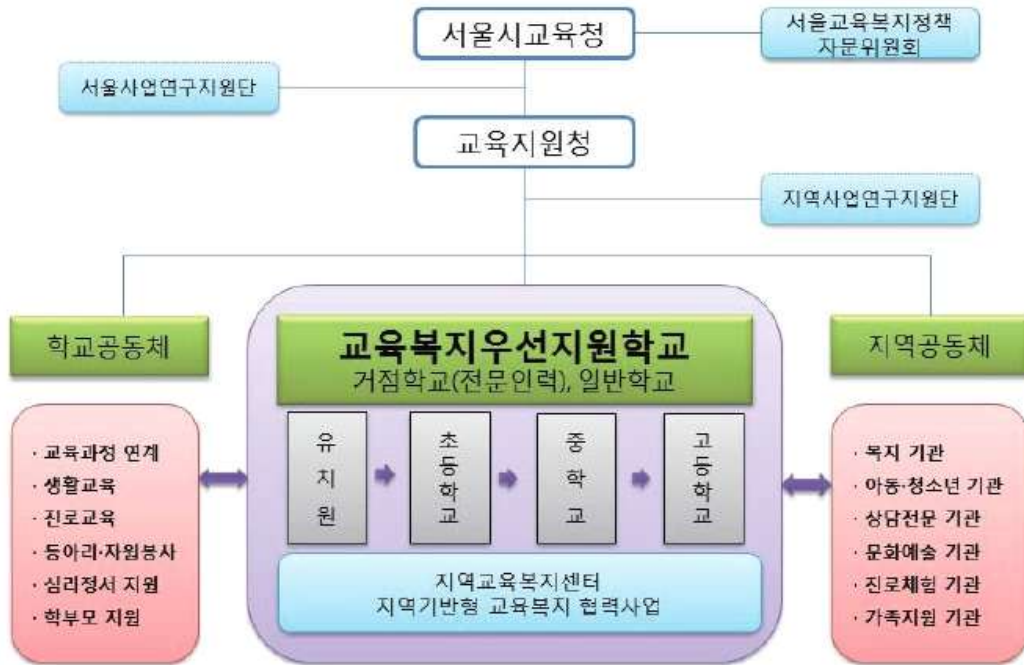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6년 사업운영 평가의견으로 유치원의 경우 일반유아교육정책과 연동하여 지원체계 및 맞춤형지원방안 마련, 거점 유치원을 중심으로 사업형태와 규모를 역량에 맞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 교육지원청의 유아사업 지원체계강화와 협력기관 발굴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생활교육 영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연계 및 지원시스템 강화를 꼽았다. 고등학교도 취학계층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계획에 포함하고 분담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운영 자율성과 행정행위 간소화를 통해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유도가 필요, 지역사회 교육복지센터의 네트워킹 기능강화를 요청하였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7:pp.19). 이와 같은 2016년도 사업 평가를 기반으로 2017년도에는 참여도가 낮은 고등학교를 줄이고, 체계에 있어 타부서 연계 통합지원팀과 교육복지공동체 활성화, 가정방문·상담·지역연계협력을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필수업무 결재사항으로 포함, 학교 맞춤형 지원비를 8%에서 10%로 업무추진비를 3.5%에서 5%로 인상하는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예산은 2016년 33,574백만 원에서 2017년 30,853백만 원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7:pp.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출발하여 2년간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10년까지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지역을 확대하였다. 2011년부터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시도교육청 주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볼 수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예산과 운영이 지역 간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복지의 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복지 지원사업 운영계획과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발전적 방안들을 제안한다.

첫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익년도 계획은 현재와 같이 교육복지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수나 만족도 수준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이것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 사업이지만 여전히 지역특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한 계획이 세워져야 하므로 ①사업대상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이봉주·문혜진·김정은, 2014), 자아 효능감, 학교적응력 등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단회적이 아닌 종단적인 분석을 지속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류방란, 2013; 류방란·송혜정, 2011), ②교육복지전문가와 학교 및 지역사회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에 기초하여 익년도 및 장단기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거점학교 대상학생과 전문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일반학교 대상 학생 간 학생 간 변화를 비교하여 집중지원을 받는 학교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에 지원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사업성고가 존재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하여 학생들의 변화가 촉진되는지, 사업의 성과를 매개하는 핵심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사업계획 설정에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2016년부터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공동체(교육과정 연계, 생활교육, 진로교육, 동아리자원봉사, 심리정서 지원, 학부모지원)와 지역공동체(복지기관, 아동청소년기관, 상담전문기관, 문화예술기관, 진로체험기관, 가족지원기관)를 연계하는 교육복지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그림 1 참고) 이러한 지역연계를 통한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익년도 예산과 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림 1> 교육복지공동체 추진모형(서울특별시교육청, 2017:pp.9)

넷째, 다문화 및 탈북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도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구체적인 교육복지지원서비스와 프로그램 내용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할 정책 산출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다. 정책 환경, 과정, 성과분석(고수현, 2011)이 모두 이루어져 다문화가족 교육복지정책이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불평등 해소가 중요한 사업목표 중 하나이다. 저소득 자녀를 포함하는 교육취약집단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주요 사업대상이 되고 이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간주된다.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학생 개인의 능력에 있다라기 보다 학생이 처한 가족 및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전기우·김순영, 2011). 따라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향후 사업의 적절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업성과분석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상과 같은 성찰을 기반으로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불평등 해소가 중요한 사업목표가 된다. 교육취약집단은 주로 저소득, 한부모, 학대·폭력, 이주민 등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주요 사업대상으로 상정될 수 있다. 교육불평 등 해소 등 모든 형태의 불평등 일소는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지역사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역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소외받는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고 이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역일 것이다. 특히,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학생 개인의 능력에 이라기보다 학생이 처한 가족 및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전기우·김순양, 2011)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저들이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교회가 돕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다. 따라서 교회가 이런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의 필요성을 교회에 알리고 참여하기 위한 인식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복지의 성패는 학생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집중 사례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교육복지전문가의 역할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교육복지 전문 인력이 학교에 상주하여 학교와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잘 담당할 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장덕호·김성기·박경호·손병덕·유기웅·윤철수·이덕난·하봉운, 2012).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자치구별 담당해야 할 학령인구 대상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2개구씩 묶어 구축되어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는 아직 미설치 지역을 분류된다. 따라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소 두 개 구역씩 묶어 운영하는 형태가 아닌 최소 1개 자치구에 1개 교육복지센터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와 같이 미설치 지역의 교회는 교육복지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지역교육청에 요청하는데 동참하고, 설치 공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교회기반 사회복지 법인이나 사단법인은 적극 위탁운영에 참여할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지역교육복지센터 구축 및 운영상황

| 자치구  | 세대      | 인구 (명)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합계 <sup>1)</sup> | 지역교육복지센터<br>구축 및 운영상황 |
|------|---------|---------|--------|--------|--------|------------------|-----------------------|
| 종로구  | 72,582  | 162,957 | 5,906  | 4,273  | 4,273  | 14,452           | 중부 1개소                |
| 중구   | 59,591  | 134,463 | 4,511  | 2,581  | 2,581  | 9,673            |                       |
| 용산구  | 107,026 | 246,317 | 9,686  | 5,675  | 5,675  | 21,036           |                       |
| 성동구  | 127,771 | 305,506 | 12,092 | 6,995  | 6,995  | 26,082           | 성동광진 1개소              |
| 광진구  | 158,554 | 373,680 | 14,403 | 9,846  | 9,846  | 34,095           |                       |
| 동대문구 | 159,429 | 371,253 | 13,654 | 8,262  | 8,262  | 30,178           | 동부 1개소                |
| 중랑구  | 177,232 | 416,887 | 16,011 | 10,535 | 10,535 | 37,081           |                       |
| 성북구  | 189,367 | 464,505 | 22,175 | 12,523 | 12,523 | 47,221           | 성북강북 1개소              |
| 강북구  | 141,275 | 332,116 | 12,964 | 8,567  | 8,567  | 30,098           |                       |
| 도봉구  | 136,829 | 351,253 | 14,896 | 10,084 | 10,084 | 35,064           | 북부 1개소                |
| 노원구  | 220,269 | 574,498 | 27,770 | 21,029 | 21,029 | 69,828           |                       |
| 은평구  | 202,404 | 498,514 | 23,464 | 14,283 | 14,283 | 52,030           | 서부 1개소                |
| 서대문구 | 136,994 | 326,359 | 12,501 | 8,168  | 8,168  | 28,837           |                       |
| 마포구  | 170,208 | 393,766 | 16,225 | 9,219  | 9,219  | 34,663           | 강서양천 1개소              |
| 양천구  | 178,742 | 485,505 | 24,238 | 18,667 | 18,667 | 61,572           |                       |

|      |         |         |        |        |        |        |          |
|------|---------|---------|--------|--------|--------|--------|----------|
| 강서구  | 242,847 | 599,611 | 24,086 | 15,155 | 15,155 | 54,396 |          |
| 구로구  | 172,473 | 451,754 | 19,431 | 10,478 | 10,478 | 40,387 | 남부 1개소   |
| 금천구  | 103,876 | 253,667 | 8,713  | 5,476  | 5,476  | 19,665 |          |
| 영등포구 | 166,661 | 410,757 | 15,610 | 8,798  | 8,798  | 33,206 |          |
| 동작구  | 172,672 | 414,261 | 16,115 | 9,423  | 9,423  | 34,961 | 동작관악 1개소 |
| 관악구  | 251,948 | 528,187 | 17,294 | 10,368 | 10,368 | 38,030 |          |
| 서초구  | 173,572 | 450,906 | 25,399 | 15,504 | 15,504 | 56,407 |          |
| 강남구  | 235,299 | 574,974 | 25,017 | 20,447 | 20,447 | 65,911 |          |
| 송파구  | 255,825 | 662,413 | 32,311 | 20,604 | 20,604 | 73,519 | 강동송파 1개소 |
| 강동구  | 177,965 | 452,299 | 24,523 | 14,613 | 14,613 | 53,749 |          |

셋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 불평등 해소는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공동체(교육과정 연계, 생활교육, 진로교육, 동아리자원봉사, 심리정서 지원, 학부모지원)와 지역공동체(복지기관, 아동청소년기관, 상담전문기관, 문화예술기관, 진로체험기관, 가족지원기관)를 연계하는 교육복지공동체를 운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지역의 복지기관, 아동청소년기관, 상담전문기관 상당수가 지역교회 기반 복지재단 및 사단법인들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교회들이 지역공동체가 학교공동체와 연계하는 지원 및 서비스 기관으로 적극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안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은 요청되는 지역의 전문 인력과 자원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이웃사랑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교회의 참여와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복지 서비스의 대상 중 가장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 및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은 여전히 이 사회의 가장자리에 머물고 있다. 교육복지 서비스에 있어서도,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구체적인 교육복지지원서비스와 프로그램 내용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할 정책 산출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이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회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다문화 및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필요를 살피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참여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3) 2016.12.12 현재 서울시 학령인구통계. 서울정보소통광장. 서울시 자치구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계. [http://opengov.seoul.go.kr/data/10565530?tr\\_code=open](http://opengov.seoul.go.kr/data/10565530?tr_code=open)

## 참고문헌

- 고수현. (2011). 다문화가족의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산출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6(3), 63-84.
- 류방란·송혜정. (201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가정의 부정적 기능 완화 효과: 초등학생의 사회성과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8(4), 119-139.
- 류방란. (2013). 학생의 변화를 통해 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 Position Paper 10(11), 1-44.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2017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기본계획·운영 매뉴얼.
- 이봉주·문혜진·김정은. (201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학업성취 효과 종단적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45, 161-190.
- 장덕호·김성기·박경호·손병덕·유기웅·윤철수·이덕난·하봉운 (2012). 미래지향적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전기우·김순양. (2011). 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 해소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의 모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27-358.